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사회초년생에

구직지원금 100만원 지원

정읍시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이나 진로 모색의 길을 선택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1월 12일부터 1인당 100만원의 '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관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2025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다. 여기에는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병행하며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재수생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령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45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12월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대 예코농산업

벤처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부안군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는 총 120학점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치유농업기사, 종자 기능사, 유기농업 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해 직장인들이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졸업 시에는 전북대학교 농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30명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농촌활력과 농촌협력팀(☎ 063-580-4892), 전북대학교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사무실(☎ 063-581-256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년 창업 · 소통 본격화

2026년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 청년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기대

고창군이 올해를 지역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군은 올해 청년정책 핵심 과제로 △ 청년 주도 창업 생태계 확장 △ 청년 참여 기반의 소통·거버넌스 강화 △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민선 8기 동안 발굴·육성해 온 청년 창업 정책을 한층 고도화한다. '청년 신규 창업 지원사업'에 총 2억5500만원을 투입해 9개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시제품 제작비(1500만원)와 시설 개선·임차료(최대 3500만

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한 창업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병행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창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운사 도립공원 내 '청년 1번가(청년몰)'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과 소득 창출 기회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기반 조성에 힘을 쏟는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10개 팀 내외의 청년 동아리에 팀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9월에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의 날' 기

념행사를 열고 창업 성과 공유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과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건비(월 최대 160만 원 등)를 지원하고, 숏폼 SNS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 홍보로 청년 정책 접근성도 강화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청년 정책들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어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임 읍면동장들, 소통 행정 펼쳐

관내 경로당 40곳 방문... 지역 현안·애로사항 청취 등

최근 정기 인사로 새로 부임한 정읍시 신임 읍면동장들이 경로당을 가장 먼저 찾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상교동과 산내면, 고부면 등 신임 기관장들은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먼저 상교동주민센터는 지난 2일 취임한 정해연 동장이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은 지역의 어른인 노인들에게 부임 인사를 전하고, 경로당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동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 동장은 각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한과 대비 난방 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세심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에 한 어르신은 "취임하마자 경로당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니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해연 동장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숙 산내면장 또한 5일부터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면장은 새해 인사와 함께 각 마을의 현안과 불편 사항을 경청하며,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는 면장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혜숙 면장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산내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 고부면장 역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관내 43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면장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물 점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주민들과 교감했다. 고부면민들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김용 면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숙 산내면장 또한 5일부터 관내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전기 저상버스 운행 시작...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4대 도입

고창군수, 버스 시승 행사 참석



'일렉시티 타운' 전기 저상버스로, 휠체어 고정 장치와 넓은 이동 공간을 갖췄다. 또한 저상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도입은 고창군 최초의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사례로, 교통약자

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친환경 교통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기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군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과 친환경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부터 해당 차량을 실제 노선에 투입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6년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규모 발행

정읍시,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력 견인

정읍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000억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연중 안정적인 상품권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판매 정책에 따라 정읍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계획적인 소비 생활 지원과 상품권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됐다. 상품권 구매는 매월 1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시는 시기별 소비 수요를 고려해 월별 발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통상적인 달인 1월, 3월부터 8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8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꾸준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특히 가계 지출이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는 평월보다 20억원 늘어난 100억원을 각각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돕는다.

다만, 매월 한정된 발행규모인 만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2년 연속 선정

신규 · 확대사업 6개 발굴... 임신 · 출산 · 산후 원스톱 안전망 강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모자보건사업 유공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임신 · 출산 지원체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2024년에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선정은 단년도 성과가 아닌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장 체감형 모자보건 정책 설계와 생애주기 기반 건강증진사업 운영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모자보건 분야에서 3개의 신규사업 발굴과 3개의 기존 사업 확

대를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 산후 회복까지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전국 최초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보험료 본인부담 80%, 월 10만원 한도 등), 임신부 1인당 100만 원 지원(부안사랑상품권),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첫째아 확대(월 최대 2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130만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기간 연장(표준형→연장형)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